

북한판 4.19 소재 소설의 대남인식

- 진우석의 『4월의 성좌』를 중심으로 -

남상권*

- I. 머리말
- II. 반미문학 소재로서의 4.19
- III. 긍정적 인물과 반동인물의 가족사
- IV. 통일운동과 북한 이해의 전과성
- V. 마무리

【요약】

『4월의 성좌』는 4.19혁명을 이끈 대학생들을 친북세력으로 설정한다. 4.19 이후 남한 대학생들이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지도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대학가에서 급진적 통일 논의가 분출된 것과 혁신계 진보정당이 출현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4.19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의견표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친북세력의 형상화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남한의 변혁운동을 활용했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이로 인하여, 50년대 이승만 정권하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 6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김종태의 통혁당사건, 6,70년대의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1, 2차 인혁당사건 등에 대한 정권의 조작 여부를 밝히려는 인권 운동가들의 숭한 노력에 의구심을 품도록 만들기도 한다.

『4월의 성과』는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 상당수가 안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외세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반자주 예측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온 역사적 현실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은 과거사 때문에 남한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진보 세력의 궤기를 촉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제기한 남한의 과거사 문제가 현재의 북한 재배 집단이 지닌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입장에서 남한 사회의 과거사 극복은 북한 체제의 자기모순적인 정체성이 그들 주민들에게 언젠가 폭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I. 머리글

북한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진우석의 장편소설 『4월의 성과』의 서문에서는 이 소설이 남한에서 출판되었던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고은, 김하기, 황석영 같은 남한 출신 작가의 작품이 북한에서 출판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필자의 노력으로 진우석이 남한 출신 작가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¹⁾ 이 소설의 인쇄일자를 보면 1987년 6월 30일이고 발행일은 8월 15일이다. 8월 15일은

1) 북한출신 작가 최진이 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 소설은 북한 <사회안전부 잡지>에 연재된 바 있다고 했고, 작가 진우석은 작가동맹 소속이 아니라 대남문제를 주로 다루는 조선노동당 문화연락부 소속 비밀작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진이 씨는 여기에 소속된 작가는 주로 실명보다 필명을 사용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글에서는 진우석이 실제 작가 아닌 익명의 누군가가 썼다는 전제로 논의한다.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해방일이다. 남한 사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자생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4월의 성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북한은 자축 분위기에서 이 소설을 출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 남한의 입장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6.29선언을 이끌어 낸 다음 날에 이 소설을 인쇄하고 그 발행일을 8.15 광복절로 한 것은 출판사 편집자의 출판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³⁾

『4월의 성좌』는 4.19의 발생과 추이에 초점을 맞추고 소설을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사실감을 보인다.⁴⁾ 탄탄한 문체를 선보이면서 일제로부터 4.19까지 이어온 친일기회주의자들의 변신을 조명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측면도 있다.⁵⁾ 그러나 작품 전개 과정에서 돌연 북한 소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수령형상화 모티브가 개입되면서 앞서 이루었던 사실성을 급격히 반감시키기도 한다. 4.19가 일어난 아침에 주인공 상춘의 어머니가 몰래 보관하고

2) 진우석의 『4월의 성좌』가 남한에서 출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 문예출판사의 선전 내용은 남한에서 출판된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주장한다. 진우석, 『4월의 성좌』서문, 문예출판사, 1987, 1쪽.

3) 1992년 북한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발행한 『박팔양 시선집』은 박팔양이 남한 학생으로 가장해서 북한에서 발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있다. 1964년 10월 13일에 발표했음을 알리는 기록과 함께 제명은 「결전의 노래」, 부제는 ‘남조선 학생이 부른 노래’로 이 작품 역시 반미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은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1993년에 나온 『백인준 시선집』에서도 보인다. 「북악산우에서」(1958)는 ‘8·15 13돐을 맞으며 서울의 한 청년이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고, 「그날밤에」(1960)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쟁소식을 들으며’라는 부제로 발표했던 것이다. 『박팔양 시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79쪽. 『백인준 시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303-304쪽, 305쪽.

4) 한국사회에서 4·19를 한동안 입장에 따라 혁명 또는 의거로 불러왔으나 1993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되어 “4·19혁명”으로 규정하여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4월 19일(4·19혁명 35주년)에 <4.19 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제하에서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발생하였던 사건 사고와 주한미군 범죄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설의 논평 및 장면제시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있던 김일성 사진을 상춘을 비롯한 운동권학생들에게 보임으로서 혁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가다듬게 한다는 설정은 수령형상화에 대한 북한 작가의 강박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⁶⁾ 이렇듯 4·19의 참 목적이 ‘반제반과 소민족통일’에 있다고 소설적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4·19를 소재적인 차원에서 다루려 한 것이고 주제적인 면에서는 4·19를 계기로 남한의 반미 자주화운동과 친북 통일운동의 전말을 『4월의 성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남한 사회는 전후 가장 견고한 반공정책을 수행했고 굳이 국가 권력에 의한 협박이 작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공에 대한 학습효과와 한미 동맹에 대한 동의가 자연스러웠던 시기이다.⁷⁾ 4·19는 이승만 정부의 3·15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한 2·28 대구학생운동에서 비롯되어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진보세력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한의 진보세력들은 6·25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고, 비록 1950년대에 진보당과 같은 자생적인 혁신정당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런 단체는 기성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진보적인 단체는 만들어지자마자 곧 국가 보안법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기 때문에 4·19는 진보세력이 형식적으로는 거의 와해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4월의 성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육과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4·19를 북한 측의 정교한 지도에 의해 혁명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었다는 주장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4·19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6) 진우석, 『4월의 성좌』, 문예출판사, 1987, 195-196쪽.

7) 조대업,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1, 2005, 겨울, 189-225쪽.

『4월의 성좌』는 남한 권력이 용공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⁸⁾ 그러나 용공조작에 걸려든 ‘불온’ 학생이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화하면서 이들 ‘불온’ 단체에 대한 남한 권력의 탄압을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인다.⁹⁾ 『4월의 성좌』에서 반미·민족통일운동이 김일성의 영도 하에서 동력을 얻는다고 설정한 것은 이 소설의 출판 시기와 맞물려 있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북한의 복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9 이후 진보단체의 결성과 학생들의 급진적 통일 논의를 북한에서 친북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국, 이들을 용공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해 온 과거 남한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게끔 북한이 보증하고 있는 셈이다. 남한 사회의 진보세력에 대한 보수 세력의 해묵은 색깔론 제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4월의 성좌』는 남한 사회에서 발생한 술한 인권탄압에 대해 북한 체제에게도 그 책임 소재와 진실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반미문학의 소재로서의 4·19

『4월의 성좌』는 4·19를 배경으로 한 반미소설의 특징을 보인

-
- 8) “그들 세 사람은 S대학 내 <불온>이라고 지목되는 학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출신도별, 가정형편, 교우관계, 학업성적, 취미, 성격, 상당히 세밀한 점까지 조사돼있었으나 공통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농촌출신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랄까. 부모들의 직업이 같지 않고 재정정도도 각이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라든가 <부역자>관계의 출신뿐이라면 공산주의로 몰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 진우석, 앞 책, 55-56쪽.
- 9) 조선미술출판사에서 1985년 8월에 발행된 『남해의 풍경』(이광호 글, 박길 그림)은 서울대 미대에 재학 중인 미모의 여대생을 등장시켜 80년대 학생운동이 북한과의 접선을 통해 반미·반파쇼 투쟁과 통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시간적 배경은 4·19를 전후한 시점이지만, 주제는 4·19를 주도한 남한 학생들의 ‘조국통일의 열망’과 외세에 대한 ‘자주성을 위해 쫓겨난 인민대중의 지향’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학에서의 반미 문제와 달리 한국문학에서 반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80년대부터이다. <반미·반일> 문제와 더불어 남한 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재인식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 항쟁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¹⁰⁾ 남한의 학생운동에서 반미주의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되어 19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이 전조적 성격을 띤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이 5·18을 야기한 한국의 군사정부를 지지하는 데에 대한 최초의 반발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초의 반미주의로서 19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활성화된 학생운동과 함께 다른 운동부문으로 확산되었다.¹¹⁾

4·19를 친북적으로 규정짓는 『4월의 성좌』는 북한 소설가가 남한 사회에서도 자신들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4월의 성좌』는 남한 학생들이 4·19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서 나아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아울러 4·19 1주년에 이르면 남한 학생운동의 방향과 지도이념이 북한식 통일운동과 주체사상에 기대고 있음도 보여준다. “여기선 선진 사상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혁명의 향도사상,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다.”라고 운동권 학생 준호가 규정한 것이다.¹²⁾ 4·19 직후 학생들이 반미 민족혁명에 뛰어들기 위해 1967년 이후에야 등장하는 김일성 주체사

10) 전재호,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본 민주화 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한국의교사논총』22, 한국외교사학회, 2000.

11) 전재호, 위의 책, 170쪽 <참고>

12) 진우석, 『4월의 성좌』, 평양 문예출판사, 1987. 8.15, 366쪽.

상을 학습하고자 하는 장면을 묘사한 데서 이 소설은 의도적인 오류를 드러낸다.

4·19가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것은 혁명적령도세력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노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여하지 못한 자연발생적인 운동에 그쳤기때문이라고 형무소에서 보았다. 사상범들은 4·19를 찬양하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약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피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흘리고 열매는 다른 친미보수세력이 따먹고있는 사실을 원통하게 알았다. 출옥한 준호도 그러한 눈으로 사회와 학생들을 보았다.¹³⁾(북한원문표기; 아래)

『4월의 성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4·19 직후의 판단이라기 보다 후일 역사적 관점에서 본 4·19에 대한 진보적인 평가이다. 소설에서의 이러한 논평은 4·19 이후 전개된 학생운동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북한 체제의 역사적 반성에 가깝다. 자연발생적인 민주화운동인 4·19가 한국 사회의 성숙된 시민사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라는 사실과 달리 북한은 4·19 직후의 결과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준호라는 인물은 주인공 상춘의 친구로 4·19 이전에 열렸던 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다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곳의 사상범들을 통하여 혁명에 눈을 뜬다. 운동권 학생이 감옥에서 선배 사상범·장기수·을 만나 새로운 사상무장과 투쟁방식을 배운다는 모티브는 7,80년대 학생운동의 단면을 묘사한 김하기의 단편집 『완전한 만남』(1990)과 겹쳐지는 부분이다. 남한 사회의 학생운동에 대한 북한의 정밀한 관찰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4월의 성좌』에서 준호가 4·19 이후 감옥에서 나와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투쟁 강령을 가진 광범한 혁명세

13) 진우석, 앞 책, 362쪽.

력을 조직한다고 설정한 것에는 이 소설이 나온 시점인 1980년대 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이야기 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1960년대의 4·19 혁명과 1980년대의 6·10 항쟁이 단순한 민주화 투쟁이라는 공통점을 넘어서 그 이후 학생운동의 방향 설정을 주목하는데 있다. 따라서 4·19에 의한 이승만 정부의 붕괴를 6월 항쟁에 의한 6·29선언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소설의 의도는 진정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자유당 간부들도 은밀한 곳에 모여서 서울의 정황을 수집하며 서로들 3·15선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드디어 <한국>의 사태를 증대시킨다는 미국대사관의 성명이 발표되고 서울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국군>의 통수권은 <유엔군> 즉 미8군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군당국은 계엄군사령부 휘하에 들게 된 <국군>사단들의 통수권을 잠정적으로 <한국>측에 넘겨주는·빌려주는 궁색한 형식을 취하였다. 그것은 봉기진압에 미국이 발 벗고 나선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미국무성은 3·15선거에 대하여 <공정한민주주의의선거>라 하여 극히 만족을 표시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3·15선거를 부인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여 그후 <한국> 사태의 추이를 주시해왔거니와 4월 19일 그날의 사태를 보자. 그것은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는데 그치거나 자유당과 리승만 반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새사회, 새 제도를 요구하는 군중들의 노도였으며 로골적인 반미투쟁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폭동화된 시위학생무장대와 경찰의 시간전, 중앙청에 계양해 놓은 <태극기>를 떼어 짓밟아버린 사실, <반공회관>을 불사르고 그 앞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쓰러뜨리려던 군중들.¹⁴⁾

14) 진우석, 『4월의 성좌』, 평양 문예출판사, 1987. 8, 220쪽.

이 부분은 남한이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는 전제로 얘기된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 예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곤란한 입장을 작가적 시각으로 논평하고 있다. 이처럼 4월 19일의 시위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반미 투쟁으로 변형시킨 것은 당시 북한의 남한 정세에 대한 대응과정과 관련된다. 당시 시위 학생들이 실제로 반미투쟁을 했다면 북한체제와 함께 반외세 투쟁을 위한 연합전선을 펼 수도 있었음을 드러낸 부분이다.¹⁵⁾ 4·19 당시의 시위가 경찰과의 시가전을 벌이고 태극기까지 깃밟을 정도의 행위라면 시위가 아니라 이는 반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계엄령은 내려졌지만 국군에 의한 시위대 피격은 없었다. 이런 전투적 정황은 다분히 5·18 광주항쟁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이 소설에서의 4·19 주체세력은 부정선거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체제를 무너뜨린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제반과소민족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으로서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세력은 허정 내각의 반공정책과 자유당을 승계한 장면 총리의 민주당의 무능 및 친미 예속주의를 극복하고 반외세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북한의 지도노선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⁶⁾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당시 남한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4·19 이후 학생운동 가

-
- 15) 4·19가 발생한 1960년에 발행된 북한의 『조선문학』의 경우, 6월호와 7월호에서 갑자기 연속적으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즉시 물러가라’는 특집을 게재하는데 이러한 반미특집을 제기한 것은 이전의 상황과 다른 남한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영미,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문학-소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03-304쪽 <참고>.
- 16) 북한의 출판물은 1964년 3월에 통혁당 창당과 64년 6·3사태와 65년 8월 한일협정 반대투쟁, 67년 선거반대운동 등 남한사회에서 발생한 학생운동을 조직·지도한 것으로 기술한다.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6, 23쪽.

운데 하나로 통일운동이 일어난 사실은 맞지만 이 소설에서처럼 김일성을 자발적으로 흠모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그의 지시를 받아 민통련을 결성할 친북적인 학생들이었을까 하는 점이다.¹⁷⁾ 4·19 직후인 1960년 5월 3일 어용학생단체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자율적인 학생조직의 탄생으로 학생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분단국가 학생으로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생각일 것이다.¹⁸⁾ 이 가운데 민주화 운동,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같은 해 11월 18일에 서울대학교에서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고 전국 10여 개 대학에서도 민족통일연구회가 발족되었다.¹⁹⁾

우리는 3, 4월의 항쟁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 땅의 역사적 사실을 전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세력, 반매관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 뿐이다. 이 민족혁명의

-
- 17) 현재까지 북한에서 남한사회에서의 친북반미운동을 그린 작품은 상당수 발견되었다. 가령, 북한 작가동맹위원장 김병훈의 『개이지 않는 하늘』(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은 1971년 1월에 발생한 일본유학생간첩단 사건을 다룬 실명소설로 제일동포 형제인 서승, 서준덕 등이 등장인물이다. 이 사건은 남한에서는 용공조작과 인권문제를 야기했지만 북한 소설에서는 이들 형제를 영웅적 친북활동으로 그린다.
- 18) 앞 주17)의 『개이지 않는 하늘』(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과 동일 주제를 다룬 작품이 1994년에 한 제일교포에 의해 나온 바 있다. 바로 서승, 서준덕 형제의 친동생인 제일교포 미술가 서준식의 수필 『소년의 눈물』(돌베개, 2004)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친북인사로 규정되거나 남한 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낙인찍힘으로써 겪게 되는 가족사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 19) 4·19 직후 1960년 4월 21일, 북한은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성명으로 통일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을 국회와 시민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결성한 <민족통일연맹>의 민족통일연방의 구성제의도 북한의 이러한 제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학생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등의 급진적 통일운동과 대규모 시위는 집권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었다. 남북문제연구소, 앞 책, 107쪽.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²⁰⁾

위는 4·19 1주년을 맞은 1961년 4·19일에 「4·19 제 2 선언문」이 나오고 4월 혁명의 중국적 길이 ‘반봉건, 반외세, 민족통일’임을 주장한 부분이다. 여기서 반외세라고 해서 북한이 곧바로 반기는 반미투쟁은 아니다. 분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재에 저항하고 의존적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욕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언은 1960년의 민주화 운동 결과로 성립된 장면 정부의 역량 부족 및 소모적인 기성정치권에 대한 회의와 낙후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만 등에서 비롯된 청년들의 현실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친북활동과 연결시키는 이 소설의 관점은 5·16쿠데타를 친미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9는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과정에서 성숙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신념과 주의를 들고 혁명에 뛰어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는 오히려 업청났고 4·19 1주년까지 그 역량을 성숙시키기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조직적인 운동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는 없었다. 학생들의 낭만적 통일운동의 방향이 과격하다고 해서 친북으로 해석한 북한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때 발발한 군부의 쿠데타를 미국의 CIA의 사주 때문이었다고 규정하기엔 북한 나름의 소설을 쓰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²¹⁾ 5·16에 대한 미국개입설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의 친일과 배신의 경력이 미국으로부터 낙점

20) 이 선언문은 『4월의 성좌』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21) 박태균, 「5·16쿠데타 40년: 5·16쿠데타와 미국-비밀해제된 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0년 여름호, 69-107쪽 <참고>

받았다고 하는 좀 민망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²²⁾ 그 근거로, 알렌 텔레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확신한다. 5·16이 미국의 CIA의 사주에 의한 쿠데타라는 주장은 1988년 전대협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지 만 이 근거 역시 알렌 텔레스의 인터뷰에만 의존하고 있다.²³⁾

1961년부터 남조선에서의 쿠데타 준비는 4·19 1주년이 되는 날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1961년 2월 초까지에 기본적인 쿠데타참모부 격인 중앙조직을 완성하고 2월 중순부터는 육군본부 세력과 지방군인을 유인하는 길에 달라붙었다.

CIA의 지시를 받은 박정희와 김종필은 먼저 제2훈련소의 최홍해를 통해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끌어들이고 4월 10일에는 미국의 승인을 얻었다. 장도영을 나꾸는 것으로 하여 <국군>내의 쿠데타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의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박정희, 김종필이 실패할 경우 대신할 수 있는 예비부대를 직접 미국에 데려다가 양성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송요찬, 정일권, 최영희 등 퇴역 장성들을 워싱턴에 불러다가 <대학연구생>이란 이름 밑에 쿠데타에 대한 전략 전술과 군정기관이 실시할 정책문제 등에 대해서 연구케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내 각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① 쿠데타를 성공케 하며

② 계엄기간 진보세력을 철저히 탄압구축하고

③ 군중의 지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진압대책 등을 강구케 했으며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 남조선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할 안을 3월까지 완성케 했다.

이와 같이 CIA에 의하여 추진돼오던 서울에서의 음모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중략>--

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5·16쿠데타는 박정희나 김종필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흥책으로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22) 정창현, 「5·16쿠데타는 미국이 주도했다」, 『월간 말』 82, 1993.4, 104-107쪽.

23)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1988, 63쪽.

양정보국장 존 알렌 텔레스는 CIA 텔레비존 방송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재임중 CIA 해외 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이 혁명(5·16 쿠데타)이었다. 미국의 일부 지도자가 지지한 장면내각은 부패하고 있었으며 리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기대에 응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만일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걸려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학생)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미국은 5·16쿠데타 음모의 장본인이며 조직자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는 미국은 교활한 수법으로 자신을 위장하기에 급급했다.²⁴⁾

『4월의 성좌』는 5·16쿠데타가 미국에 의해 기획되었음을 위와 같은 근거로 정설화 한다. 북한이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쿠데타 세력이 강력한 반공정책으로써 ‘분계선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을 하고자 달려가려는 학생들의 길을 총검’으로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5·16쿠데타로 학생들의 급진적 통일논의를 좌절시킨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소설은 4·19 이후 학생운동이 친북 통일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집단이 일으킨 5·16 쿠데타는 나쁜 ‘미제의 음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반민족적이라 규정한다. 이와 반대로 5·16쿠데타는 이 소설에서 얘기한 친북 세력에 대한 반동이었기 때문에 남한의 보수 세력은 4·19에 대한 북한의 과장된 해석이 나올수록 4·19의 순수성에 의혹을 품을 수 있다.²⁵⁾ 이 소설은 한국 보수사회의 입장에서 5·16쿠데타

24) 진우석, 앞 책, 574-575쪽.

25) 5·16을 미국의 CIA의 사주에 의한 쿠데타라는 주장은 1988년 전대협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4월의 성좌』에서 같은 내용이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는 4·19 이후 전개된 한국 진보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남한의 진보 세력은 북한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북한이 관심을 갖게 된 순간부터 용공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수 정권은 이들이 향후 북한과 연계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탄압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탄압에 대한 북한의 지대한 관심 역시 남한의 중도적 입장마저 보수화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I. 긍정적 인물과 반동인물의 가족사

『4월의 성좌』에서 적대적 두 계급의 갈등을 그려내는 전범은 『피바다』식 혁명가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북한 소설에서 관습적으로 나타나지만 해방 이후 남한 소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보기 어려운 창작방식이다. 주인공 상춘의 어머니는 『피바다』에 나오는 윤섭의 아내처럼 일제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었지만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큰아들 상백을 혁명을 위하여 북으로 보내었고 남한에 남은 작은 아들 역시 혁명가로 훌륭히 길러낸 것으로 설정된다. 주인공 가계를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행하면서 김일성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그린 것은 남한 사회 역시 북한식 역사관에 따른 민족해방과 민족통일론의 대전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한 사회가 강고한 외세에 점령되어 있고 거기에 편승한 소수의 기회주의자가 행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불행하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월의 성좌』는 역사적 변혁기에 서로 부딪히며 대를 이어 온

두 가계를 제시한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3·15부정선거에서부터 4·19혁명의 발발, 그리고 이를 좌절시킨 5·16쿠데타까지 1년 남짓하지만 얘기된 시간은 한말 의병전쟁까지 거슬러 간다. 한말까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면서, 두 집안의 숙명적 대결이 역사적 제 조건 하에서 피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두 가계가 역사적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작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전형성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 또 오원필이 부친을 밀고한 원수의 집의 소작인으로 살아가면서 밀고자의 아들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시대의 선각자로서 역사의 제단에 바쳐지는 과정은 억지스러운 데가 있다.

북한 소설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은 부정과 긍정의 대립이며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주제를 쉽게 이끌어내는 손쉬운 방법일 듯싶다. 이런 점에서 『4월의 성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은 한말에서 5·16까지 대립하여 온 두 가족의 연대기로서,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한 사회의 부정적 계승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하려는 작가적 의도 내지 북한 사회의 의도에는 북한이라는 절대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두 가계의 설정은 남한 지배사회가 퇴행적 역사에 기대고 있음을 상징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은 불굴의 투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시대 이념의 지표는 북한 체제에 있고 그 체제를 이끄는 김일성은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이다.

일제시기 권세환네 집은 장자울에서 오랜 지주였고 어머니네는 그 집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의 집이었다.

만약 어머니의 남편 오원필이 량심적인 민족주위자로서 1920년대에 고향에서 유지들의 지원을 받아 학원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그 두 집은 보통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넘지 못하는, 다시 더 이야기될 게 없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권세환은 어릴 때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었고 따라서 어머니를 소작인의 한 안해로서가 아니라 모교 교장선생님의 사모님으로 보아야 했다.

오원필은 k군에서 3·1운동을 조직한 사람의 하나였다. 경찰에 체포되어 5년 징역을 살고 나온 다음에는 학원을 경영하며 후대를 교육하는 한편 <신간회>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을 때에는 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학원출신의 청년들이 조직하는 농민조합운동에도 관계했으나 그는 주로 독립운동으로 국외와 무슨 연계를 맺고 있다가 그것이 탄로되어 중국으로 망명하고 말았다. 학원은 폐쇄되고 교사는 권세환네 집 곡물창고로 변했다. 오원필은 32년에는 만주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왔다 7년형을 받았다. 만기 출옥을 1년 앞두고 병보석이 되어 10년 만에 집마당 흙을 밟아보았다.

중일전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때 권세환은 일본서 어느 사립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집에 들어와 있었다. 스승은 많은 풍상 끝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연금을 당하고 있는 몸이었고 제자는 어쨌거나 최고학부를 나와서 아직은 그 예비덕분에 새파를 모르는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청년이었다.

제국주의렬강의 모순이 제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으로까지 발전되자 오원필은 경찰의 감시하에서도 비밀결사를 모색하여 징병반대운동을 준비하던 도중에 발각되어 국내와 만주로 피해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사건의 런루로 처음에는 이십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검거되어서 권세환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며칠만에 놓여나왔다. 그러나 일년후에 피해다니던 오원필이 잡히던 날에 같은 장소에서 그도 함께 잡히게되었다. 막대한 국방헌금을 하고 겨우 빼놨노라고 그의 예비 권생원은 오원필을 칭원했으나 권세환 본인의 입에서는 그것에 대한 일체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권세환의 밑고로 오원필이 잡힌 것이다.²⁶⁾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살아온 남한의 좌익민족주의 계열 가계와 우익 기회주의 계열 가계의 궤적을 표본적(도식적)으로 드

26) 진우석, 앞 책, 33-34쪽.

러내놓고 있다. 북한 체제가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은 가계는 오원필 일가이다. 여기에는 오원필과 그의 아내 깨끄지(이름)의 인연을 한말 의병전쟁과 연결시킴으로서 가난하지만 의식과 정통성에서 빼어난 혈통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깨끄지의 아버지 지서방이 고향에서 백리나 떨어진 장자울에까지 와서 의병운동을 할 때 권세환의 아버지 권생원 집에 들었다가 권생원의 밑고로 일제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다. 이 장자울에는 오원필의 아버지 오달만은 권생원의 집 소작인이다. 권생원의 밑고로 다섯 의병이 모두 잡힐 위기에 빠지자 힘이 장사인 오달만이 의병 대장을 담 밖으로 내던짐으로 해서 다른 네 명의 의병과 함께 생매장을 당한다. 오원필의 아버지 오달만과 깨끄지의 아버지 지서방이 함께 죽은 것이 도리어 인연이 되어 후일 결혼하게 된다. 권생원 일가는 오원필과 깨끄지 집안 모두의 원수인 것이다. 그럼에도 권세환과 사제간의 인연을 맺고 후일 권세환의 밑고로 목숨마저 잃고 만다. 오원필 일가의 선은 권세환 일가의 악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이 두 가계의 지향이 다르듯이 추종하는 지도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남편이 말하던 리승만은 협잡군이었다. 욕심꾸러기였다. 수치도 체면도 의리도 인정도 없는 오직 권세와 돈만 아는자, 인간적인 감정의 일체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철면피였다. 그가 가는 어디에나 평지풍파의 과벌싸움이 벌어졌다.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에서, 미주에 가면 미주에서 그 싸움이 교포 사이에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동포들의 공유 재산을 자기 개인 명의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테로와 협박의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말과 문필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폭력단의 괴수로서 몽둥이 찜질을 하며 동포들의 등을 쳐먹었다. 자리를 차고 나오는 어머니의 머리에는 남편의 말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그런데 권세환은 어머니가 나온 것도 모르고 리승만을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리승만은 미국에 붙어서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애걸한 매국노이며 협잡군 불한당이라는 것을 들어왔다.

애국의 일념으로 젊음을 불태우며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던 남편은 오로지 백두산과 만주벌판을 주름잡으시며 무장을 잡으시고 왜놈들을 격멸하시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보며 살아왔다.

보천보 전투를 비롯해서 남편은 김일성장군님의 많은 전투사적을 알고있었다. 그뿐아니었다. 당시 국내에는 징지울과 같은 촌에 이르기까지 그분에 대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다.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태양과 같이 믿었다. 아무리 암담한 때에도 저녁 모깃불을 둘러싸고 혹은 정자나무 밑에서 사랑방에서 그 이야기만 오고가면 사람들은 앞날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들을 장차 그이를 따르도록 가르치라고 유언했다.²⁷⁾

여기서 김일성과 이승만의 상대적 비교는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의 비교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승만에게도 김일성적인 요소가 있고 김일성에게도 이승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김일성에 대한 극단적인 우위는 북한 문학이 내부 비판으로 시선을 옮길 수 없는 절대적 한계를 보게 한다. 이 소설에서 오원필 일가는 6·25 이후 부역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남한 사회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해낸다. 전후 한국사회의 부역자 가족의 일상이 고단했음을 그리는 것은 80년대 이전의 남한 소설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다.²⁸⁾ 반면 권세환 일가는 친일 경력과 친미의 경력을 발판으로 지주에서 자산가로, 경방단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다. 권세환은 출세를 위하여 스승 오원필을 이용하면서도 스승의 가족에 대해 핍박을 가한다. 전형적인 악인으로서 외세와 권력에 아부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묘사된다. 권세환이 이승만과 이기붕을 위한 권세환으

27) 진우석, 앞 책, 118-119쪽.

28) 남한 문학에서도 사상 통제와 현실 반영을 작가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다. 이태, 이병주, 김원일, 조정래, 이문열, 윤홍길, 박완서 등이 보인 분단문학으로서의 현실 진단이 80년대 이후에 와서야 두드러진 것도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미국과 미군을 등에 업은 권세환으로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동안 오원필 일가는 갖은 핍박 속에서도 김일성을 위한 일념과 민족해방을 위해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4월의 성좌』는 남한 사회의 긍정적 가계와 부정적 가계의 대립 상태가 극복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선진화된 사상과 경제력으로 남한 사회를 계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따라서 남한 민중은 부정적 가계의 거대한 성장과 폭력적 지배에 대항해야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한복판에 김일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가 한국 사회의 구성관계를 재단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투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오상춘 가계와 권세환 가계를 도식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오상춘 가계: 오달만(소작, 의병장 구출)-오원필(소작인, 3·1운동, 신간회, 김일성 추종 항일 운동)-오상백(오원필 장남, 빨치산, 월북)-오상춘(4·19 주동, 민통련간부, 5·16 후 체포 감옥살이)
 오원필의 아내 깨끄지(의병의 딸, 자식에게 부친의 유언 전함, 권세환과 끝까지 투쟁)
 오상백의 아내 귀선(월북 남편을 대신하여 가계를 이끔, 비밀결사 조직 참여)
 오상춘의 애인 채남(의대생, 혁명에 동참, 상춘의 감옥살이를 뒷바라지 하면서 기다림)
- 권세환 가계: 권생원(지주, 의병밀고)-권세환(일제 경방단-친미자본가-자유당국회의원-민주당 국회의원-5·16협조)-권동진(권세환의 아들, 5·16쿠데타 참가 군인)

이를 보면, 오원필 일가는 한말에서부터 외세와 반민족 세력으로부터 수난을 겪으며 일사분란하게 반민족적 세력과 투쟁을 해 온 셈이다. 반면에 지주로부터 출발하여 밀고자, 친일 경방단 간

부, 미군통역, 매판자본가, 국회의원 등으로 변신한 권세환은 변절의 대가로 대대로 양지에 살고 있는 모습이다. 해방과 6·25, 4·19가 권세환을 번갈아 위기로 내몰지만 고비마다 반전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마침내 4·19로 불안해 하다가 5·16쿠데타가 일어나 쿠데타에 참여한 아들과 함께 부와 명예를 더욱 높이 쌓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추종했던 세력이 몰락해도 새로운 세력과 마음도 잘 맞아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이런 지배 구도는 남한 사회를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자주적인 곳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을 영도로 하는 남한 사회의 민중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통일운동과 북한 이해의 전파성

『4월의 성과』 서문은 ‘교활무쌍한 미제의 음모’로 인해 투쟁이 실패하였지만 남한 인민은 이런 상처를 안은 채 ‘통일을 갈망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출판했음을 밝힌다. 이 책이 출판된 1987년의 현실은 북한이 규정한 4·19혁명과 유사한 6월 항쟁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 소설은 북한 내부용으로 읽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외부에서 읽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9를 이끈 학생들을 김일성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로 묘사하는 데서 남한의 정체성은 무시되고 그 앞에 미국이 버티고 서있음도 보게 된다. 북한 소설에서 남한의 진보적 학생운동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 이들은 북한이 보증하는 친북세력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출판보도부문에서는 남조선 군사파쇼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선전공세를 힘있게 들이대야 합니다. 기자, 편집원들은 나라와 민족을

미제와 일제에게 송두리째 팔아먹고있는 남조선 괴뢰도당에 대한 온 민족의 분노와 적개심을 담아 기사의 문장하나, 말 한마디가 놈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단죄하고 론고장이 되고 적들의 숨통을 찌르는 총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조선괴뢰도당을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킬수 있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파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²⁹⁾

북한은 이러한 선전술로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파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대열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월의 성좌』에서 묘사된 남한 사회의 다양한 모순은 북한이 ‘폭로규탄하는 선전공세’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모순에 몸을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규탄 자체가 현실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모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을 때, 지배 권력은 정권적 차원에서 이들을 허위로 만들어진 관제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해 온 것이다.³⁰⁾ 북한이 대남 선전공세를 하기 위해 동원된 남한의 자생 진보세력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희생될 가능성이 농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29)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단서를 1966년 12월 28일 김일성이 “당대표자회의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라는 주제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정책개발원, 『북한의 국영 출판체계와 남북한 출판물 교류에 관한 연구』, 1999, 5쪽.

30) 김광식, 앞 글, 138쪽.
홍석률, 「4·19시기 북한의 대남 제안과 남북경제협력」, 『통일시론』6, 2000. 4. <참조>
이문희, 『북한의 통일론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김광식, 「4·19시기의 혁신운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19, 역사문제연구소, 1988.3.
김지형,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과정」, 『역사와 현실』21, 한국역사연구회, 1996.
한모니까, 『4·19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 정세 분석가 통일대남정책의 변화』,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이다.³¹⁾

『4월의 성좌』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4·19 당시 남한 학생집단이 이 사상에 관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북한 문학에서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창작 방법론은 대개 1967년 이후부터이며 1970년에 와서야 확립된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김일성 장군을 흠모하거나 주체사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보이는 인물을 묘사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1980년대 남한 학생들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과 일면이 닮아 있는 듯하다. 1980년 초의 반미 운동의 방향이 1986년에 이르면, 반전·반핵·반미 투쟁으로 학생 운동의 노선이 분명해진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1987년 6월 항쟁은 6·29선언을 이끌어냄으로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전통적인 민주화 운동의 서막은 일단 내려진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미운동을 축으로 통일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러한 통일 운동을 용공이적단체로 몰아가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저항을 한다.³³⁾ 이러한 논의는 『4월의

31) 이런 현상은 북한 정권의 교시에 의한 문예정책이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극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안희열, 『주체문예이론·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사회과학원출판사, 1996. 5. 225쪽.

32)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234쪽.
선우상렬, 『광복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59-70쪽.
이영미,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문학·소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05쪽.

33) “통일문제는 ‘멸공’이나 ‘승공’처럼 누가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래 통일된 한 민족이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단계 조국통일 촉진 운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반통일 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통일 논의를 전민족적 차원으로 확산, 민주화하고, 둘째, ‘북

성좌』에서 묘사된 내용과 거의 일치함으로 80년대 남한 학생의 통일운동이 굳이 북한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에 호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³⁴⁾

80년 6월 항쟁 이후, 남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해지고 2000년대에 와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가져왔지만 진보 세력에 대해 의혹을 보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간에 북한 체제는 남한의 정세 변화를 관찰하면서 남한 진보세력에 대한 과장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1980년대 이전의 남한 내의 자생적인 진보세력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가령 1960년 8월 23일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난 다수의 진보정당의 운명은 이를 입증한다. 당시 진보정당이 굳이 친북 노선을 걸고 자주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의 입장에선 북한의 문학·정치 현상과 연동의 이러한 선진술에 의해 이들이 북한이 서로 내통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³⁵⁾ 5·16 쿠데타는 4·19 이후 등장

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통해 그릇된 반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함으로써 민족적 대단결 의식을 고양시키며, 셋째, 분단올림픽의 개최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분단화를 획책하는 반통일 세력의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다.”(이광영, 「학생운동권의 통일논의 전개 과정」, 『기독교사상』 한국기독교서회, 1988.7, 80쪽.)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방향은 당시 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론과 단독올림픽 개최 반대를 위한 각종 위협과 맞물려 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돌일 수 없다』, 남풍신서, 1988. 182-190쪽.

34) 안철홍, 「반미, 북한 그리고 90년대에 대한 나의 생각-12시간 심층 인터뷰 강철 김영환 10년만에 입열다」, 『월간 말』, 1995.4, 74-77쪽.

35) 북한은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들과 관련이 있었음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5차 당대회에서 “진보당은 반제반파쇼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우며, 미제와 그 압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6년에 창당된 진보당의 본질을 왜곡해버린다. 남북문제연구소, 앞책, 18쪽.

했던 다양한 진보세력을 몰락하게 하였지만 이는 자유당 정부 하에서 벌어진 전철이기도 했다.³⁶⁾

『4월의 성과』는 4·19를 발발케 한 남한 체제에 대한 북한 체제의 일관된 비판과 함께 4·19의 성격을 왜곡함으로써 80년대 학생운동과 같은 전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이런 소재의 선택은 80년대 말에 전개된 통일운동에 대한 자발적 친북 경향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4·19를 소재로 삼음으로서 북한 체제가 지속적으로 남한의 학생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화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이 소설의 다음 부분과 일정한 복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 인용부분은 4·19 이후 남한 학생운동지도부가 북한의 대남방송을 청취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여 자신들의 운동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누구신가의 부드럽고 저력있는 음성. <무슨방송이야?> 상춘이 아직도 궁금한 대로 가만히 물어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상춘은 목이 메었다. 어깨는 가늘게 파듯했다. 어머니가 4·19날 아침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명절 8·15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큰아들 상백을 보고 싶어 하는 녀원도 거기에 담겨 있었다. 형수 귀선이 남편을 기다리는 애끓는 희망도 반영되어 있었다³⁷⁾

36) 1956년 5·15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은 유효 투표율 30%인 216만 3808표를 득표한 바 있다. 이 진보당은 민주당 다음 가는 제 2야당으로 이전에 결별한 민주혁신당과 함께 진보적 정당으로 존재했다. 이 두 정당은 인적 갈등에 의해 분당되었지만 정강정책은 글자 한자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진보당만이 국가보안법에 걸려들어 당수인 조봉암은 사형에 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집권세력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보안법의 잣대를 신축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진보당 사건에 민주당이나 민주혁신당의 누구도 진보당을 탄압하는 자유당의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지 않았다. 김광식, 앞 책, 134-135쪽 <참조>.

37) 진우석, 앞 책, 445쪽.

위는 미지의 김일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해 하는 남한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아울러 이상춘 일가의 대를 이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보여줌으로서 남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역자 가족들이 감시와 사찰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4월의 성좌』는 남학 학생들이 북한 체제와 김일성의 존재 감에 지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의 충만과 남한의 결핍을 대비하면서 남한을 위한 북한을 강조한다. 아울러 혁명의 미완지대인 남한 사회에서 계급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지배계급이 미국의 비호로부터 더욱 약탈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궁극적으로 반체반미자주의 민족통일의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 사회로서는 남한에 이러한 소설이 있다는 것으로 수령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것이고 외세에 의지하여 민중을 탄압하는 남한 지배계급의 독재와 그 추종자들의 매판성을 규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결국 미제 축출과 김일성이 지도하는 민족통일 노선을 추종해서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야 한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또 오원필 일가가 김일성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줌으로서 남한 사회의 미래 역시 김일성의 영도하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4·19는 남한 사회가 외세와 매판자본으로부터, 독재 권력으로부터 착취당한 과거를 극복하려는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³⁸⁾ 『4월의 성좌』가 4·19를 배경으로 한 소설임에도 1980년에야 볼 수 있는 남한 학생운동의 반외세 민족통일론을 그린

38) 이러한 시각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본 4·19로서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도 공유하는 생각이다. 이는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묶어서 본 것이다. 4·19가 반독재 민주항쟁에서 민족통일운동으로 간 일군의 흐름은, '서구의 틀을 통해 우리 역사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4·19를 바라보겠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창현, 「민주와 통일의 결합: 끝나지 않는 미완의 혁명 4·19」, 『내일을 여는 역사』8, 내일을 여는 역사, 2002.7, pp. 95-96.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1960년대에 이미 이입된 것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학생운동 전개 과정에 대한 북한의 현재적 관심을 충분히 살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옷을 다 꺼내자 종이로 바른 바닥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그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한참동안 보고 있었다.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사연을 그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들 앞에 사진을 놓았다.

<이 어른이 누구신지 아니?>

상춘은 순간 밝은 태양을 대하듯 세상의 모든 감격으로 하여 가슴이 높이 뛰었다.

그 의의있는 아침에 그분을 뵈옵는다는 감격, 그분의 초상을 보여 주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지금까지 그가 고민하고 모색하던 길이 환히 빛나며 자기가 그앞에 섰는 흥분, 미래를 내다보는 희열.

<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입으로 그이의 이름을 가르쳐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을 느꼈다.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네.>

--<중략>--

<학생들도 모두 알지?>

어머니는 여러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압니다.>

<언젠가 상춘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장군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초상을 꼭 간직해 두었네. 내가 자식한테 해줄수 있는 건 그 이야기밖에 없어서 그런거야. 그런데 학생들을 모두 난 상춘이 같이 내 자식으로 알아요.>

학생들은 앓음앓음을 고쳐 앓았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³⁹⁾

39) 진우석, 앞 책, 196쪽.

이 부분은 4·19 아침에 아들 친구들에게 몰래 감추어둔 김일성 사진을 공개함으로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 의욕을 고무시키는 장면이다. 이 사진 앞에서 감격해 하는 학생들을 그려냄으로서 4·19혁명에 끼친 김일성, 또는 북한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⁴⁰⁾ 아울러 부역자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과 감시를 받아온 어머니가 당당히 수령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세상이 왔음을 보여준다. 아들이 어머니의 소중한 사진 앞에 경건함을 보여줌으로서 김일성이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4·19가 반제반과소혁명으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난 후 민주화 운동에서 결집된 역량을 조직화하여 북한이 계도한 통일운동으로 전환하도록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월의 성과』는 4·19정신의 확산이 자생적 친북세력에 의해 통일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렇다고 4·19 이후 학생운동의 한 갈래로 급진적 통일논의가 전개되고 정치적으로 혁신계 진보정당이 출현한 사실은 민주화의 진전 때문이지 북한에 의해 계도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하에서 발생한 조봉암 등의 진보당 사건과 6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김종태 등의 통혁당사건, 6,70년대의 1, 2차 인혁당사건 등의 간첩사건에 대해 오늘날 그것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점도 있다. 결국 북

40)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 주체문학론』에서 밝힌 내용과 부합되는 점도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좋은 감정을 품고 돌아가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의 통일외지에 더욱 공감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통일방안을 적극지지 성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족문화유산을 옹호 평가하고 잘 계승하고 있는 것과도 많이 관련된다.”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8-59쪽.

한의 대남 선전물과 선전문학은 남한 사회에서 발생한 듯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북한 체제는 남한의 공안당국과 공범이 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 국내정세는 복잡하다. 그걸 잘 분석하고 우리의 갈길을 찾아 내는 것도 이 사상을 잘 연구하는 테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유감인 것은 김일성원수님의 저서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당장 그것을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차차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것으로 부터 시작한다.>

준호는 공책을 학생들 앞에 내놓았다. 학생들은 그것의 목차도 훑어보며 혹은 내용도 띠엮띠엮 읽어보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준호가 지적한대로 국내정세는 복잡하게 조성되어간다. 친미보수세력들은 얼마전에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다녀간 다음부터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아이젠하워가 남조선에 온 정치적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다.

4·19는 미국이 수십 년 길러놓은 리승만을 쫓아냈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4·19 후에 일본에서도 반미적인 색채를 띤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토이기에서도 학생들이 선봉에 나서서 독재자 멘데리스정권을 전복했다.

허정 <과도정권>은 지금 그러한 학생세력 앞에 놓고 있을뿐 아니라 미국이 믿는 보수세력 전체가 그 학생들 앞에서 불안한 것이다. 그 위축되고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친미보수세력을 고무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는 다녀갔다.

다른 하나는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등 미국이 믿는 허수아비들의 여명을 유지해주며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그 나라들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엮어매며 아세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동북아세아군사동맹> 조작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그 노구가 유명같은 그림자를 끌고 기여왔던 것이다. 만약 그 동맹이 성립되는 날에는 조선은 남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조국통일은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⁴¹⁾

41) 진우석, 앞 책, 368쪽.

위의 사실은 4·19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아쉬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당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했던 것은 학생들의 과격성과 낭만성 때문이기도 하다. 노련한 북한 체제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었고, 민주당 정부는 혁명을 야기한 학생집단을 일방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도 북한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더구나 이 시기는 북한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이승만 독재 하에서 심각할 정도가 사회가 부패해왔고 4·19 이후에도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순간을 북한체제가 희망하던 통일의 기운이 빠짝 다가왔다고 느꼈을 터지만 이윽고 발발한 5·16 쿠데타는 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국가를 통제하는 독재자를 경쟁자로 두었기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이다.

V. 마무리

『4월의 성좌』는 3·15 정·부통령 선거에 자유당 정권이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정치 행위를 포착하면서 대구, 마산 등지에서 시작된 시위가 서울로 확산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

42) 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성과를 밝히는 90년대의 입장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일의 꽃> 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립수경학생이 희생을 무릅쓰고 분계선을 넘어간 영웅적거사도 세인을 경탄케하는 놀라운 극적 사건이었다. 얼마전에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보도된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적인 이야기다. 작가는 현실에 있는 극적인 소재는 여러 방면에서 찾아내어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그려야 한다.”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61-262쪽.

고 4·19혁명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청년들이 벌이는 혁명정신의 확산과 민족통일의 정당성, 혁명의 길로 안내한 김일성에 대한 끝없는 흠모 등을 보여준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인한 혁명의 좌절과 쿠데타 배후에 있는 외세에 대한 증오를 걱정적으로 담아낸다. 진우석이 북한 작가라면 이 작품을 쓰기 위해 남한 사회의 오랜 변화를 상당히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4·19를 소재로 하여 80년대 남한 학생운동에 대한 북한 체제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4월의 성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 사회의 주류 집단 상당수가 안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외세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주권문제로부터는 늘 부자유스러웠던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사실은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안고 온 역사적 부채이기도 하다. 북한 체제가 남한의 이러한 과거문제를 이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비주류 집단을 자극해 온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제기한 남한의 문제가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류집단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과거사 극복은 곧 북한 주류 사회의 현재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분단에서부터 6·25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의 분노를 키워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미 적대관에 대해서 1980년대까지 남한 내에서는 동조자를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듯하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해 은인으로 각인된 보수적인 정서에다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반공정책의 효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반미는 곧 반국가로 각인되는 독선을 안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한 사회에서 진보적 혁신단체의 탄생을 반기는 한편으로 이들 단체를 친북세력으로 간주해 북한 체제를 내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남한 내 보수 세력은 진보세력이 출현하면 조건반사적으로 탄압해버리는 빌

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소설은 4·19를 ‘조국통일의 열망과 독재정치에 대한 원한을 품고 맨주먹으로 이승만 독재통치를 무너뜨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영웅적 봉기’가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위한 혁명으로 수렴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음모와 이를 추종한 쿠데타 세력 때문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5·16쿠데타로 인하여 4·19혁명이 통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 사실에 대한 북한 체제의 아쉬움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직후에 이 소설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남한 사회에서 진행된 학생운동의 방향성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하는 것과 아울러 남한 학생운동에 북한 체제가 관여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4·19혁명(4·19 Student Revolution), 주체사상(the North Korea'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과거사(past affairs), 친일파(the pro-Japanese group), 민족해방운동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민족주의(nationalism), 자유당(the Liberal Party), 5·16쿠데타(5·16coup d'Etat)

참고문헌

1. 북한자료

- 김병훈, 『개이지 않는 하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김정일,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박팔양, 『박팔양 시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백인준, 『백인준 시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서준식, 『소년의 눈물』, 돌베개, 2004.
 안희열, 『주체문예이론 -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사회과학원출판사,

1996.

진우석, 『4월의 성좌』서문, 문예출판사, 1987

2. 논저

김광식, 「4·19시기의 혁신운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19, 역사문제연구소, 1988.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2000.

김지형,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과정」, 『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1996.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6.

박태균, 「5·16쿠데타 40년」: 5·16쿠데타와 미국 - 비밀해제된 미국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0년 여름호.

선우상렬, 『광복후 북한 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이문희, 『북한의 통일론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이성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실천문학』, 1983.

이영미,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과 문학」 - 소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관련하여 -, 『현대소설연구』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1988.

정창현, 「민주와 통일의 결합: 끝나지 않는 미완의 혁명 4·19」, 『내일을 여는 역사』8, 내일을 여는 역사, 2002.7.

조대업,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1, 2005.

한모니까, 『4·19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 정세 분석가 통일·대남정책의 변화』,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한국정책개발원, 『북한의 국영 출판체제와 남북한 출판물 교류에 관한 연구』, 1999.

홍석률, 「4·19시기 북한의 대남 제안과 남북경제협력」, 『통일시론』6, 2000.4.

A recognition against South Korea in the novels on
4.19 Student Revolution printed in North Korea
- focused on *Saworui Seongjwa* by Jin U-seok -

Nam, Sang-Kwon

In *Saworui Seongjwa*, the university students who lead 4.19 Student Revolution was assumed as a pro-North Korea force. After 4.19 Student Revolution, it say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of South Korea, pledging loyalty to Kim Il-sung, develop unification movement under his leadership. In that day, it was true that radical arguments on unification spouted in universities, and a progressive party of reformist line appeared. However, that's because the come-out of various expression on issues in question is possible at the advance of democratization. In this novel, the image-making of pro-North Korea force is not irrelevant to the fact that North Korea made use of upheaval movement of South Korea to propagate her regime domestically and abroad. Because of this fact, sometimes a doubt is had about the efforts of the supporters for the human rights to make the whether-or-not of made-up by government about some affairs, that is, those of Jo Bong-am's Jinbodang under Lee Seung-man regime in the nineteen fifties, Kim Jong-tae's Tonghyeokdang under Park Jeong-hui regime in the nineteen sixties, the first and second Inhyeokdang in the nineteen sixties and seventies.

Saworui Seongjwa makes a subject of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past historical issues, which a large number of mainstream groups of Korean society hold. It says that these groups reproduce their vested rights by holding tight to anti-autonomous, subjugating principles in relating with outer forces. This opinion is partly a historical reality which Korean society has had. This novel insists that South Korea regime has no orthodoxy because of such past historical issues, and also urges the progressive forces of South Korea to

rouse to action. But it overlooks that the problem of past historical issues of South Korea which North Korea raises can be applied equally to the problem of the present ruling groups of North Korea. Viewing from a standpoint of North Korea, overcoming of the past historical issues by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implies, indeed, that self-contradictory identity of North Korea regime can be overcome by her people.

남상권

대구의한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주소: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동서마을 109-1303

전화번호: 011-9597-6211

전자우편: yipap@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